

- **주요 뉴스:** 미국의 주간 고용지표, 오미크론 불구 양호한 노동수요 지속 가능성을 시사
 -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수 년 동안 2% 상회할 전망
 - 중국 상무부 차관, 2022년 수출 부문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
 - OPEC+ 관계자, 1월 회의에서 현행 일일 40만배럴 증산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연말 위험회피 성향 강화 등이 영향
주가 하락[-0.3%], 달러화 강세[+0.1%], 금리 하락[-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차익실현 증가 등으로 하락 마감
 유로 Stoxx600지수는 여행 및 레저관련주 강세 등으로 0.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고용지표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2%,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위험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배경
 독일은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전망 등으로 보합 마감

※ 원/달러 1M NDF환율(1190.9원, +1.2원) 0.1% 상승, 한국 CDS 보합

		12/30일	12/29일	전일대비			12/30일	12/2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778.7	4,793.1	-0.30%	국채 금리 10y	미국	1.51%	1.55%	-4bp
	유럽	488.71	487.98	0.15%		독일	-0.18%	-0.18%	0bp
	중국	3,619.2	3,597.0	0.62%	CDS 5y	한국	21bp	21bp	0bp
	일본	28,792	28,907	-0.40%		중국	40bp	41bp	-1bp
	한국	2,977.7	2,993.3	-0.52%	위험 지표	EMBI+	-	385	-
환율	달러지수	95.98	95.93	0.05%		VIX	17.33	16.95	2.24%
	유로화	1.1325	1.1349	-0.21%		WTI유	76.99	76.56	0.56%
	엔화	115.08	114.95	-0.11%	원자재	구리	438.5	440.2	-0.40%
	위안화	6.3731	6.3678	-0.08%		금	1,814.7	1,804.7	0.55%
	원화	1,188.8	1,186.5	-0.1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의 주간 고용지표, 오미크론 불구 양호한 노동수요 지속 가능성을 시사

-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19만8000건으로 전주(20만6000건) 및 예상치(20만8000건)를 모두 하회. 특히 4주 평균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19만9250건을 나타내 5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 이는 팬데믹의 장기화, 고물가 지속, 공급 차질 등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견조한 노동수요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 PNC Financial은 오미크론 영향으로 고용이 잠시 둔화될 수는 있으나, 이후에 다시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Oxford Economics의 Nancy Vanden Houten은 지금까지 오미크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특히 직원들이 오미크론으로 건강 측면에서 심각한 상태인 경우가 많지 않아, 기업도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진단
- Pantheon Macroeconomics는 2022년에 월간 평균 45만건의 신규 고용과 연말 실업률 3.5%를 예상. 한편 일부에서는 팬데믹 영향으로 노동력 감소가 발생하고 있기에, 향후 인력부족과 임금상승 압력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수 년 동안 2% 상회할 가능성

- 닛 총재는 ECB의 2023년 인플레이션 1.8% 하회 전망은 과도하게 낙관적인 예상일 수 있다고 언급. 오히려 2% 이상에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 이탈리아 중앙은행 비스코 총재는 2023~24년 인플레이션은 상·하방 압력이 모두 존재한다고 평가. 또한 현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발언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홀츠먼 총재는 ECB가 내년에 비통상적 완화정책과 채권시장에서의 마이너스 금리를 없애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

■ 영국 12월 네이션와이드 주택가격, 전년동월비 10.4% 올라 15년 만에 최고치

- 네이션와이드는 재고부족과 팬데믹 영향으로 좀 더 넓은 집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해당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 다만 내년은 금리상승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상무부 차관, 2022년 수출 부문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

- 렌 홍빈 차관은 금년 수출호황을 유도했던 주요 요인들이 점차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 특히 여타 경쟁국의 생산능력이 회복되고, 그 동안 수출품 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했던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

■ 중국 인민은행, 금융기관에 부동산 프로젝트 매입 지원을 촉구

- 위기에 직면한 부동산 개발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 일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 자국 내 부동산 부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의 매입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일본 설문조사, 정부가 장려하는 3% 이상 임금인상을 계획하는 기업은 20% 미만

- 닛케이 설문조사에서 해당 결과가 발표. 2%대와 1%대의 임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대답한 기업의 비중이 각각 43%, 26%. 이에 기업 경영진들의 신중한 의사결정이 기시다 총리가 추진하는 소득 재분배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

■ OPEC+ 관계자, 1월 회의에서 현행 일일 40만배럴 증산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

- 오미크론 관련 불안이 완화되고 있어 향후 수요가 회복되면서 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 최근 미국이 비축전략유 방출과 OPEC 회원국들에 대한 증산 요청 등을 통해 유가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

■ 러시아와 독일,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가동 준비 완료

- 러시아 국영가스기업 가스프롬은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가동을 위한 가스 충전이 끝났다고 밝혀, 이를 통해 가스 공급이 가능한 상황임을 언급. 미국은 그 동안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잇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건설을 반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트(12/3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2월 시카고 PMI: 63.1, 11월(61.8), 예상치(62.0)

■ 주요 경제 이벤트(12/31 현지시각 기준)

- 중국 국가통계국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은행권, 대출증가와 금리인상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 - Financial Times

(US banks: growth in rates and loans will set the tone)

- 2021년 뉴욕은행지수는 영업이익 호조 등으로 37%이상 상승하는 등 은행주 주가는 4/4분기 최고치를 경신. 이러한 가운데 2022년 대출 증가와 연준의 연속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은행권은 예대마진 등으로 수익이 늘어날 전망
- 그러나 S&P Capital은 양호한 경제성장이 지속되어도 초과유동성이 2조9천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이에 일부 은행은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주택저당증권(MBS)과 고수익채권 매입을 확대. 다만 향후 금리 상승 시 금융자산 가격 하락에 직면할 우려

■ 인플레이션 및 중국 리스크, 2022년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 - 블룸버그

(Inflation and China Failed to Rattle Markets. 2022 Might Be Different.)

- 2021년 글로벌 금융시장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중국 리스크(기업규제 강화, 부동산 침체, 공동부유 정책)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 하지만, 이러한 2개의 리스크에 따른 영향이 내년에는 좀 더 증폭될 가능성
- 여전한 공급 차질, 오미크론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낮은 채권금리, 높은 수준의 증시 밸류에이션 등은 내년 전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 미국 중간선거와 연준의 정책실회 약화 등의 변수도 내재
- 또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Zero Covid Policy), 자국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도 향후 투자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중앙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은행 회복 저해할 우려 - Financial Times

(Banking stress tests' halo fades with the crisis)

■ 2022년 미국 소비자 신용, 위험증가 예상되나 은행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 - WSJ

(The Return of Credit Risk Doesn't Have to Be an Unwanted Sequel)

■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 OPEC의 생산 증대 등으로 둔화될 전망 - Financial Times

(Energy prices: post-Covid rally will burn out)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